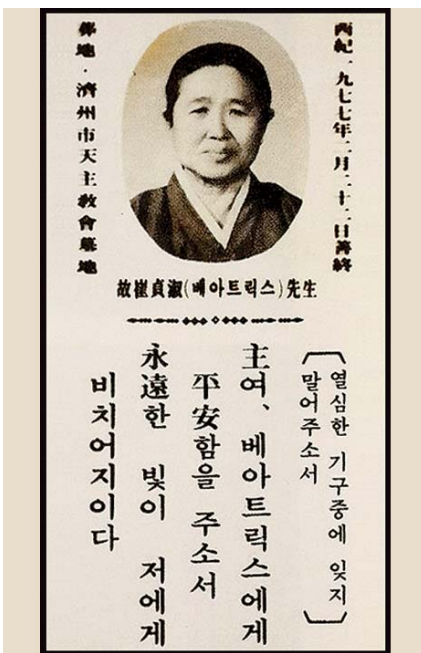


# 3·1운동 100주년, 시대를 밝혔던 삶 뮤지컬로



제주 중앙성당 신자들이 최정숙 선생 타계 이후 고인을 애도하며 제작한 기도문. '신각 제주여성 구술자료집 최정숙'에 실린 사진이다.

독립운동가·교육가·의료인 모범적 신앙인 최정숙 선생 현미혜의 '셋별의 노래' 원작 천주교제주교구 뮤지컬 제작 "송고한 생애 널리 퍼졌으면"

제주도 초대교육감 최정숙(1902-1977) 선생. 그는 국권이 상실되고 민족의 정신이 말살되는 일제강점기 내내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을 직접 행동으로 옮긴 인물이었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다니던 18세에 3·1독립만세운동에 앞장섰던 그는 일경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혹독한 고문을 겪고 옥고를 치렀다. 3·1운동 이후에는 강평국 선생과

뜻을 합쳐 민족계몽과 실력 양성이 또다른 독립의 길임을 확신하고 고향 제주에 주야간 명신학교를 세우는 등 교육에 힘을 쏟았다. 천주교제주교구 3·1운동 100주년 기념위원회가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민족교육가, 의료인이었던 최정숙 선생의 생애를 품은 무대를 선보인다. 6월 3-5일 제주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 창작 뮤지컬 '동뿔저, 혼자 글라-최정숙'이다. '날이 밝았다, 어서 가자'란 의미를 담아 제주방언으로 공연 제목을 붙였다.

1시간 30분에 걸친 이 작품은 천주교 세례를 받은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경천애인'과 '생명평화의 삶'을 살다갔던 고인을 기리며 만들어졌다. 일제침략기와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의 시대에 나라와 지역

을 위해 헌신하며 등불을 밝혔던 '큰 스승'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현미혜의 '셋별의 노래'를 원작으로 이은미 각색·극본, 이충훈 연출, 윤순이 작·편곡으로 만날 수 있다. 최정숙 역은 공개 오디션으로 선발된 박신영이 맡는다. 주최 측은 "천주교 신자만이 아니라 제주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셨던 최정숙 선생님의 송고한 생애와 사상을 감성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뮤지컬 공연으로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며 "이번 뮤지컬을 통해 최정숙 선생님의 삶이 널리 전달되어 깊은 공감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오후 3시와 7시30분 하루 두 차례 열린다. 관람료는 무료. 문의 064)729-9500. 전선희기자

## “제주신인문학상 부활... 젊은 피 수혈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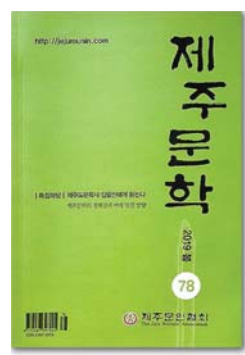
제주문협 '제주문학' 특집 회원 좌담 통해 과제 짚어

제주문인협회(회장 고운진) 회원으로 활동하는 중견 문인들이 '젊은 피 수혈'을 외쳤다. 기관지 '제주문학' 2019년 봄호(통권 78호) 좌담에 담긴 내용이다.

이번 특집 좌담은 '제주도문학사 집필진에게 듣는다'란 주제를 내걸었지만 자연스레 제주문협의 오늘을 진단하는 자리로 흘렀다. 좌담에 참

석한 김관후 작가는 “세간에는 누구나 문인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과거에 비해 문협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운을 뗐다. 강용준 작가는 “패기있는 젊은 작가들을 많이 수용해서 생기 넘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최근 제주문협 신인문학상 부활이 거론됐다. 양전형 작가는 “제주신인문학상은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시상금 확대 등을 통해 더



키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승철 작가는 “(문협이)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

인상의 부활, 젊은 문인들의 참여를 위한 심포지엄, 젊은 문인들과의 국내외 문학 답사, 제주문학 특집에 젊은이들의 목소리 담기, 등단 5년 미만인 젊은 작가들에 대한 제주문학 신인상 신설 등을 예로 들었다.

반면 변종태 작가는 '제주문협의 노령화' 지적에 대해 “회원 각자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낡은 작품을 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라며 “결국 끊임없는 창작 훈련이 회원들에게 요구된다”는 의견을 냈다. 양전형 작가도 “젊은 피 수혈”이라는 과제를 잘 수행하면서 문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가치있는 문학단체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승철 작가는 “제주문협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할 한시적인 자문회의를 만들어 제주문협의 미래를 그려 나간 연후에 젊은 작가들이 마음껏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펼쳐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 문화가 쫓겨

### 문화예술교육주간 행사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달 26일 산지천갤러리 일대에서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5월 넷째주) 행사를 펼친다.

'노는게 예술이네!'라는 이름을 붙인 이번 행사는 제주 곱다락토요문화학교,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브라질퍼커션 바투카다'와 '신화맥노리' 공연을 시작으로 '이야기놀이터', '예술로 놀며 지켜지개', '모두다 '꿈'이다', '오보록 소보록 꿈터' 체험 등이 차려진다. 문의 064)800-9177.

### 섬아트제주 서포터즈 모집

(사)섬아트제주가 11월 28-12월 1일 매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리는 '아트제주2019' 서포터즈 10명을 모집하고 있다.

아트제주 서포터즈는 6월 24일 발매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가동할 예정으로 소정의 활동비와 수료증이 지급된다. 모집 기간은 5월 19일까지로 공식 블로그(blog.naver.com/artjejukorea)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ysheo@artjejukorea.com)로 제출하면 된다.

### 영주고 3D 캐릭터 개발 교육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애니메이션 분야에 관심 있는 영주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3D 캐릭터 콘텐츠를 활용한 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시행한다.

교육은 3D 캐릭터 개발 기초과정과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심화과정으로 짜여진다. 5월부터 11월까지 기초 애니메이션 이론, 3D 캐릭터 모델링 실습, 3D 캐릭터 액팅 모션캡처 녹화 실습, 비주얼 유투버를 활용한 1인 미디어 콘텐츠 개발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제주비엔날레 방향 토론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비엔날레 방향 및 제도 모색' 토론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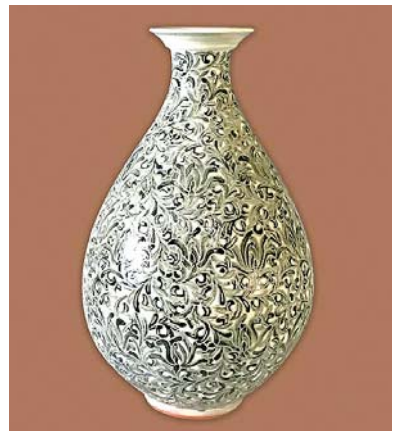
2020년 제2회 제주비엔날레의 방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준모 평론가가 '비엔날레의 운영과 지역 특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고 강민석 제주미술협회 회장, 이명복 작가, 제주청년 미술작가회 조기섭 회장, 오현미 독립 큐레이터,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이 토론을 맡는다.

이번주(5월 20-26일)

무대 & 미술

## 분청항아리에 피어난 인동초 덩굴

최대연 도예가 작품전 겨울 이긴 생명력 빛어



최대연의 인동초문 분청항아리.

분청항아리에 인동초 덩굴이 내려앉았다. 최대연 도예가의 인동초문 분청항아리 작품전이다. 제주전통문화평생교육원장으로 있는 최 도예가의 여섯번째 작품전인 이번 전시에는 제주 전역에 자생하는 인동초 덩굴을 모티브로 전통을 바탕에 두고 빛은 분청자 항아리가 나왔다. 자연에서 얻은 생명의 어울림이 펼쳐진다. <공연>

▶발라드와 스케르초=소팽 서거 170주년 기념 피아니스트 제주대 심희정 교수와 국민대 윤철희 교수 조인트 리사이틀. 5월 20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 음악관 콘서트홀. 754-2790.

▶한국시낭송제주연합회 시낭송 스토리극=5월 21일 오후 7시 제주학생문화원. 750-1691.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 네번째 모차르트=제주 보 피아노 듀오 주최 5월 21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8664-4204.

▶한국생활음악협회 서귀포지부 연주회=5월 21일 오후 7시 서귀포예술의전당. 010-3691-4453.

▶제주 전국장애인연극제=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주최 5월 21-24일 오후 7시 문예회관에서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 '커넥션', '내친구 상훈이', '목마른 남자'가 차례로 공연된다.

751-8095.

▶너나들이 가족사랑 퓨전국악 콘서트=5월 22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5699-4964.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연주회=5월 23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728-2776.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연주회=5월 23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760-2494.

▶기타리스트 김광석의 '구름에 달 가듯이'=5월 24일 오후 7시 서귀포문화베타리충전소. 738-5855.

▶비눗방울을 탄 임금님=5월 24일 서귀포예술의전당. 010-3690-4116.

▶매직 클리프 문화나눔=중문

관광단지 퍼시픽랜드 5월 24-25일 남정 4인조 '업브래더' 콘서트 등 진행. 738-8866.

▶배다해·신지호의 '마지막 꽃피움'=5월 25일 오후 5시 문예회관. 710-7643.

▶탐라국악제=한국국악협회 서귀포지부 5월 25일 오후 7시 서귀포예술의전당. 010-2697-0560.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행사=5월 26일 산지천갤러리 일대. 800-9177.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유망 신예 초청 협주곡의 밤=5월 26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760-2494.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6월 16일까지 연장 공연. 목·금요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 1688-4878.

<전시>

▶김만덕기념관 개관 4주년 '은혜로 콦다'=5월 22-6월 30일. 759-6090.

▶제주도사진단체연합전=5월 23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최대연 도예전=5월 23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제47회 제대미전=제주대 미술학과 주최 5월 25-30일 문예회관. 710-7633.

▶제주아마추어작가회 창립전=5월 25-6월 2일 서귀포예술의전당. 010-3368-9232.

▶김지환의 '다시 피어난 생명: 꽃이다(異多)'=5월 26일까지 서귀포문화베타리충전소. 738-5855.

▶찾그릇과 솔그릇=5월 26일까지 스페이스 에나르. 772-4280.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2019

##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제주에너지공사

# 참여기업 선호도 "1위"

2019. 5. 16 신청 마감결과

##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발전은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 제주솔라에너지

#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esolar.co.kr